

조선시대 양산(梁山) 가야진(伽倻津)의 문화사

김세호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양산 가야진(伽倻津)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가야진은 오늘날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 위치한 나루로, 고려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기록에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제례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야진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을 검토하고, 고려사·세종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를 통해 그 변천 과정을 살폈다. 특히 가야진이 칠독(七瀆)의 하나로 지정되어 중사(中祀)를 담당했던 사실과, 낙동강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례의례와 관련한 시문 및 기우제문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가야진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앙과 문화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감로사와 같은 주변 명승지, 민간에 전승된 속설, 사대부들의 유람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하여 가야진이 단순한 나루를 넘어 문화적 상징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낙동강 유역의 문화사적 이해를 확장하고, 지역 문화와 지리적 상징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색인어: 옥지연(玉池淵), 상용당(上龍堂), 적석용당(赤石龍堂), 칠독(七瀆), 황산강(黃山江)

1. 서론

가야진(伽倻津)은 오늘날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에 자리한 나루이다. 가야(伽倻)라는 명칭이 지명에 차용되며 삼한시대에 기원한 곳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이곳은 용과 관련한 전설이 깃들었고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

했다. 조선시대 편찬한 지리지 등에 그 내용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 지금도 지역에 서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를 설행하고 있으니 이는 과거 가야진의 사당에서 행해진 의식을 계승한다.¹⁾

이러한 역사에 주목하여 학계에서도 가야진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만하다. 하나는 가야진이 지닌 나루의 성격을 바탕으로 역사적 지리적 성격을 밝힌 것이고,²⁾ 다른 하나는 오늘날 행해지는 가야신용신제와 관련한 내용이다.³⁾ 그중 전자는 삼국시대 기록과 조선시대 자료에 근거해 분석을 진행했고, 아직 조명되지 않은 시문 등이 전하기에 추가적인 연구의 여지는 다분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야진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그 역사성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가야진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중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시문이 전하고 있다. 제례를 행하고자 했던 제관(祭官)과 이곳 일대를 유람한 이들은 가야진이 지닌 역사적 성격을 간과하지 않았다. 여러 시문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가야진의 문화적 면모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가야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작은 단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야진의 위치와 지리정보

가야진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가야와의 관련성이 깊은 지명으로 보인다. 다만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 및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아 이후에 생성된 지명임을 짐작할 수 있다.⁴⁾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가

1)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가야진용신제보존회(伽倻津龍神祭保存會)」.

2)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전덕재, 「조선시대 영남지역 포구와 나루의 변천」, 도서문화 2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6.

3) 이은주·최윤희·김미선, 「밀양 가야진 용신제 참여자 복식 고증」, 한국복식 5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4; 이주연·김명원, 「가야진용신제의 풍물놀이 연행방식 변화 연구」, 한국예술문화연구 1, 한국예술문화학회, 2021; 남재우, 「新羅의 새로운 경계, 加耶지역에 대한 신라 지배: 아라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15, 경남사학회, 2020; 고준휘, 「양산 가야진사유적 출토 陶磁祭器의 현황과 성격」, 동악미술사학 17, 동악미술사학회, 2015.

4) 일부 사전에는 가야진이 본래 밀양군 하동면 검세리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산군 원동면 용당리로 편입되었다고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가야진」) 이미 고려 현종(顯宗) 대 양산이 잠시 밀양에 속한 적이 있어 일종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 권57 志 권11[地理二] 慶尙道, 「梁州」)

야진이 신라와 가야의 전쟁이 벌어진 황산진(黃山津)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아울러 본래 영산(靈山)에 자리한 가야진이 양산(梁山)으로 옮기며 생성된 곳이라 하였다.⁵⁾ 다만 이 글에서는 오로지 문헌자료에 의거하여 가야진의 이동은 없다는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가야진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어떠한가. 『고려사(高麗史)』에 수록된 가야진과 관련한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양주)의 별호는 의춘(宜春)이고[성종(成廟)이 정한 것이다.] 다시 부르기를 순정(順正)이라 한다. 가야진과 황산강(黃山江)이 있다. [무안(務安)의 용진(龍津)·광양(光陽)의 섬진(蟾津)과 함께 ‘거슬러 흐르는 세 개의 큰 강물(背流三大江水)’이라 일컫는다.] 다시 가야진연소(伽倻津衍所)가 있다.⁶⁾ (『고려사(高麗史)』 권57 지(志) 권11[지리 2((地理二)] 경상도(慶尙道), 「양주(梁州)」)
- 영산현(靈山縣)은 본래 신라 서화현(西火縣)이다.景德왕(景德王)이 상약(尙藥)으로 이름을 고쳐 밀성군영현(密城郡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쳐 이에 밀성에 속하였다. 충경왕(忠敬王) 15년(1274)에 감무(監務)를 설치했다. 온천(溫泉)이 있고 다시 가야진명소(伽倻津溟所)가 있다.⁷⁾ (『고려사』 권57 지 권11[지리 2] 경상도, 「밀성군(密城郡)」 <영산현(靈山縣)>)

『고려사』 지리에 수록된 가야진 관련 기록의 전문이다. 양주에 가야진과 가야진연소, 영산에 가야진명소가 자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주는 오늘날의 양산을 가리킨다.⁸⁾ 사실상 명칭만 전하고 다른 정보는 전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이때부터 가야진의 이름을 지닌 세 개의 지명이 존재한 사실이 보이고 가야진은 양산에 속한 나루임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조선 전기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중 위치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양산 가야진은 속칭 옥지연(玉池淵)으로 양산

5)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6) 別號宜春[成廟所定], 又號順正. 有伽倻津, 黃山江[與務安之龍津, 光陽之蟾津, 稱爲背流三大江水]. 又有伽倻津衍所. 屬縣二.

7) 靈山縣本新羅西火縣, 景德王, 改名尙藥, 爲密城郡領縣. 高麗, 更今名, 仍屬. 忠敬王十五年, 置監務. 有溫泉, 又有伽倻津溟所.

8) 양주의 별호로 언급한 의춘은 조선시대 의령의 다른 이름이다.

서쪽 33리에 있고, 양산 가야진연연(伽倻津衍淵)은 속칭 적석용당(赤石龍堂)으로 양산 남쪽 22리에 있다고 하였다.⁹⁾ 가야진연연은 가야진연소를 가리킨다. 한편, 영산 가야진명소는 기음강(岐音江)에 보이니, 기음강은 양산 서쪽 28리에 있고 용당이 있으며 축문에 ‘가야진명소의 신(伽倻津溟所之神)’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¹⁰⁾ 『고려사』에 수록된 세 곳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양산의 가야진은 중사(中祀)의 공간으로 중시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거듭났다. 이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가야진과 관련한 자세한 기록들이 보인다.

- <산천(山川)> 가야진: 일명 옥지연으로 군 서쪽 40리에 있으니 황산강 상류이다. 우리 세종(世宗) 조에 황룡이 물속에서 나타났다. 날씨가 가물어 비를 빌면 번번이 응한다.

<사묘(祠廟)> 가야진사(伽倻津祠): 사전(祀典)에 공주(公州) 웅진(熊津)과 더불어 모두 남독(南瀆)이 되니 중사에 실려 있다. 매년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한다. 적석용당: 고을 남쪽 22리에 있다. 고려 때 가야진연소라 일컬었다. 본읍에서 제사를 지낸다.¹¹⁾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상도, 「양산군(梁山郡)」)

- <산천> 기음강: 현(縣) 서쪽 48리에 있다. 창녕현(昌寧縣) 감물창진(甘勿倉津) 하류로 의령현(宜寧縣) 정암진(鼎巖津)과 합하는 곳이다. 예로부터 가야진이라 일컫는다.

<사묘> 기음강용단(岐音江龍壇): 사전에 가야진명소라 일컬으니, 봄 가을 본읍에서 제사를 지낸다.¹²⁾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7 경상도, 「영산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양산의 가야진과 가야진연소, 영산의 가야진명소 관

9)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梁山郡〉: 大川, 伽倻津.[在郡西三十三里, 俗稱玉池淵, 神龍所在, 每歲春秋降香祝行祭, 中祀. 今上卽位之三年辛丑, 有赤龍見於津中.] 伽倻津衍淵[在郡南二十二里, 俗稱赤石龍堂, 春秋令所在官行祭.]

10)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靈山縣〉: 岐音江[在縣西二十八里, 有龍堂, 春秋令守令行祭, 祝文稱伽倻津溟所之神.]

11) 〈山川〉伽倻津: 一名玉池淵, 在郡西四十里, 黃山江上流. 我世宗朝, 黃龍見津中. 天旱禱雨, 輒應; 〈祠廟〉伽倻津祠: 祀典, 與公州熊津俱爲南瀆, 載中祀. 每歲降香祝以祭; 赤石龍堂. 在郡南二十二里. 高麗稱伽倻津衍所, 本邑致祭.

12) 〈山川〉岐音江: 在縣西二十八里. 昌寧縣甘勿倉津下流, 與宜寧縣鼎巖津合處, 古稱伽倻津; 〈祠廟〉岐音江龍壇: 祀典稱伽倻津溟所, 春秋本邑致祭.

런 기록이다. 『고려사』에서 가야진이 군 서쪽 33리에 있다고 하였다가 서쪽 40리로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¹³⁾ 오히려 세종 대에 황룡이 출현한 사건을 보완하고 가야진에 가야진사가 들어서며 국가의 제례를 담당하는 장소로 거듭난 사실을 보여준다. 가야진연소와 가야진명소의 경우 고을에서 제례를 주관했다고 하니, 결국 고려시대 이래로 가야진이 중심이 되었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가야진과 관련한 내용은 이후 조선시대 가야진을 이해하는 전형으로 인용되었다. 다만 국가에서 중시한 가야진과 달리 여타 가야진 관련 장소의 역사는 자세하지 않다. 19세기 무렵 적석용당으로 일컬어진 가야진연소는 쇠퇴를 거듭하며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¹⁴⁾ 반면 가야진은 고려시대 이래 지속되며 양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기록을 통해 전승되었다.¹⁵⁾ 일부 황산진과 동일시한 사례도 있지만 재고의 여지가 있다.¹⁶⁾

3. 중사를 시행한 칠독의 공간

조선시대 가야진은 중사(中祀)를 지내는 공간으로 중시되었다. 과거 국가에서는 절기마다 큰 제사를 지냈고 중요도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해 그 규모를 달리했다. 그중 중사는 풍운뇌우(風雲雷雨)와 악해독(嶽海瀆) 등을 대상으로 삼으니, 본래 삼국 시대에는 가야진 하류 황산강이 사독(四瀆)의 하나로 일컬어졌다.¹⁷⁾ 이후 고려시대에 가야진의 위상이 증대되었고,¹⁸⁾ 조선 전기 칠독(七瀆)의 하나로 이름을 올린다.¹⁹⁾

13) 황룡이 출현한 사건으로 위치를 이동한 것인지 자세하지 않으나 양산 가야진이 존속한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14) 『輿地圖書』(補遺編) 慶尙道, 「圖[梁山郡]」: 赤石龍塘: 在郡南二十二里, 高麗稱伽倻津衍所, 本邑致祭. 今廢.

15) 金正浩, 『大東地志』 권7, 「梁山」; 吳弘默, 『輿載撮要』 권6, 「梁山郡」. 가야진의 위상이 지속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6) 가야진을 황산진과 동일시한 근거는 『여지도서』 양산군읍지 제단조에 근거한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伽倻津祠祭壇은 (양산)군 서쪽 40리에 있으니, 곧 낙동강 하류이다. 신라가伽倻를 정벌할 때 往來하던 나루이다. (황산)강의 상류와 하류를 통칭하여伽倻라고 칭하였다. 고려시대에 赤石龍堂을 가야라고 불러 致祭하였고, 우리 세종조에 황룡이 江中에 보이자, 용이 보인 곳에서 致祭하고, 또한 가야라고 불렀는데, 이는 옛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덕재, 앞의 논문) 다만 해당 기사는 『여지도서』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근거한 설명인지 출처를 알 수가 없다.

17) 『三國史記』 권32 雜志1 祭祀, 「四瀆」: 四瀆, 東吐只河[一云槩浦, 退火郡], 南黃山河[歙良州], 西熊川河[熊川州], 北漠山河[漠山州].

18) 李詹, 『東文選』 권92, 「三國圖後序」: 其脊以西之水, 則曰薩水, 曰浪江, 曰碧瀾, 曰臨津, 曰漢江, 曰熊

가야진이 중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알아본다.

조선 전기 가야진 일대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용이 출몰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²⁰⁾ 이후 조정에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사(正史)의 기록을 통해 그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병조(兵曹)가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와 함께 논의하여 아뢰었다. “경상도 양산군 가야진의 옥룡연(玉龍淵)·안강현(安康縣) 형제포(兄弟浦)의 온지연(溫之淵)²¹⁾·전라도 나주(羅州)의 현도(懸島) 등지는 세속에 전하기를 용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청컨대 그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목장을 양껏 지어 여러 목장의 순백색 암컷 말을 골라 들여놓고 시험하게 하십시오.” 왕이 그대로 따랐다.²²⁾

세종 대에 용과 관련한 전설이 전하는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기록이다. 양산군 가야진의 옥룡연·안강현 형제포의 온지연·나주목의 현도를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양산 가야진 옥룡연은 옥지연의 오기로 보이고, 안강현 형제포 온지연은 용이 감응한 곳으로 유명하며,²³⁾ 나주목의 현도는 용진단(龍津壇)이 자리한 금강 일대를 가리킨다.²⁴⁾ 조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후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가야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하듯, 가야진은 다른 장소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과 달리 꾸준한 위상을 유지했다. 물론, 아무런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성지(梁誠之)는 제사의 공간이 대부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산천이 변화하고 수도의 이전으로 방위도 바뀌었기에 제사 공간의 혁파를 주장했다.²⁵⁾ 그중 가야진도 개혁

津, 皆達于西海, 脊以東, 獨伽耶津南流耳. 고려시대 이미 낙동강을 가야진으로 일컫은 정황이다.

19) 『太宗實錄』太宗 14년(1414) 8월 21일. 예조(禮曹)에서 산천의 사전(祀典)과 관련하여 올린 상소로 가야진이 중사의 공간으로 거론한 사례가 보인다.

20) 『世宗實錄』世宗 3년(1421) 4월 13일.

21) 『新增東國輿地勝覽』권21 慶尙道, 「慶州府」: 溫之淵: 在安康縣東二十四里, 有龍堂. 天旱禱雨, 有應.

22) 『世宗實錄』世宗 15년(1433) 5월 8일: ○兵曹與司僕寺提調同議啓: “慶尙道梁山郡伽倻津玉龍淵·安康縣兄弟浦溫之淵·全羅道羅州懸島等處, 諺傳有龍之處. 請令其道監司, 量築牧場, 擇諸牧場純白雌馬, 入放試驗.” 從之.

23) 『新增東國輿地勝覽』권21 慶尙道, 「慶州府」: 〈形勝〉溫之淵: 在安康縣東二十四里, 有龍堂. 天旱禱雨, 有應.

24) 『新增東國輿地勝覽』권35 全羅道, 「羅州牧」: 〈祠廟〉龍津壇: 在錦江北岸, 與仰巖相對, 本邑致祭.

25) 『世祖實錄』世祖 2년(1456) 3월 28일; 梁誠之, 『訥齋集』권2, 「便宜二十四事」

의 대상으로 거론되었고 폐지를 주장한 사례가 보이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야진은 국가를 대표하는 중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에는 악해독의 제사를 위해 설치한 제단이 설치되었고 이와 관련한 기사에서 가야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단묘(壇廟)> 악해독단(嶽海瀆壇): 남교(南郊)에 있다. 제도는 풍운뇌우(風雲雷雨)와 같으니, 오직 담 하나에 제단은 없고 사당 세 칸이 있다. ○악(嶽): 남쪽으로 지리산(智異山)은 남원(南原)에 있고, 중앙은 삼각산(三角山)이고, 서쪽으로 송악(松嶽)은 개성(開城)에 있고, 북쪽으로 비백산(鼻白山)은 정평(定平)에 있다. ○바다(海): 동해(東海)는 양양(襄陽)에 있고, 남해는 나주(羅州)에 있으며, 서해(西海)는 풍천(豐川)에 있다. ○독(瀆): 남쪽으로 웅진(熊津)은 공주(公州)에 있고, 가야진(伽倻津)은 양산(梁山)에 있다. 중앙은 한강(漢江)이다. 서쪽으로 덕진(德津)은 장단(長湍)에 있고, 평양강(平壤江)은 평양에 있으며, 압록강(鴨綠江)은 의주(義州)에 있다. 북쪽으로 두만강(豆滿江)은 경원(慶源)에 있다.²⁶⁾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악해독의 제단과 관련한 기록이다. 악은 산이고 해는 바다이며 독은 강물이니, 각각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대상을 정립한 사실이 보인다. 이상에서 독은 모두 7개의 대상을 제시했고, 남쪽으로 공주의 웅진과 양산의 가야진이 보인다. 각기 금강과 낙동강을 대표하는 제단이라 할 만하니 가야진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야진은 중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특정한 시기 제례를 거행한 대상지가 되었다. 조선 전기 성종(成宗)이 위독하자, 국가에서는 산천에 제사를 올릴 것을 권유했고 이때 가야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중종(中宗) 대 가뭄이 들자 악해독에 비를 빌도록 하였고,²⁸⁾ 숙종(肅宗) 대 경상도에 가뭄이 들자 경상도관찰사가 비슬산(毬瑟

2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 京都[上], 「京都[上]」: <壇廟> 嶽海瀆壇: 在南郊. 制與風雲雷雨同, 唯一壇, 無壇, 有廟三間. ○嶽: 南, 智異山在南原. 中, 三角山. 西, 松嶽在開城. 北, 鼻白山在定平. ○海: 東海在襄陽, 南海在羅州, 西海在豐川. ○瀆: 南, 熊津在公州, 伽耶津在梁山. 中, 漢江. 西, 德津在長湍, 平壤江在平壤, 鴨綠江在義州. 北, 豆滿江在慶源.

27) 『成宗實錄』 成宗 25년(1494) 12월 23일. 바로 다음 날 성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뜻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위상을 확인할 만하다.

山)과 가야진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²⁹⁾ 한편에서는 양산군수(梁山郡守)가 가야진에 용신을 모신 사당을 관리한 노력도 기록에 전한다.³⁰⁾ 가야진에 대한 관심이 단지 기록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한다.

4. 낙동강의 상징 가야진

가야진은 낙동강 물길 가운데 칠독(七瀆)의 하나로 채택되며 위상을 확립했다. 오늘날은 하나의 물길을 하나의 강으로 이름하여 대표하지만 과거 강물은 물굽이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일컬어졌다. 이를 총괄하는 이름이 존재했음에도 굽이별로 지칭한 것은 각각의 지역마다 고유의 특징이 내재된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야진은 낙동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영남 물길의 중심지가 되었다. 가야진의 지리적 상징성을 알아본다.

물론 가야진이 처음부터 그러한 것인지는 미상이다. 시작은 그저 하나의 지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은) 물을 합하여 상주(尙州)에 이르러 낙동강이 되고 선산(善山)에서 여차니진(餘次尼津)이 되며, 인동(仁同)에서 칠진(漆津)이 되고, 성주(星州)에서 동안진(東安津)이 되며, 가리현(加利縣)에서 무계진(茂溪津)이 된다. 초계(草溪)에 이르러 합천(陝川)의 남강(南江) 물과 합하여 감물창진(甘勿倉津)이 된다. 영산(靈山)에 이르러 다시 진주(晉州) 남강(南江)의 물과 합하여 기음강(岐音江)이 되고, 칠원(漆原)에서 우질포(汚叱浦)가 되며, 창원(昌原)에서 주물연진(主勿淵津)이 된다. 김해(金海)에 이르러 밀양(密陽) 응천(凝川)을 지나 뇌진(磊津)이[해양강(海陽江)이라고도 한다.] 되고, 양산에서 가야진이 되고 황산강(黃山江)이 되어,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³¹⁾

28) 『中宗實錄』 中宗 11년(1516) 4월 17일.

29) 『承政院日記』 肅宗 37년(1711) 6월 7일: 至於今月十九日, 琵琶山 伽倻津兩處, 連次祈雨祭設行事.

30) 張應一, 『聽天堂集』 권4, 「府使鄭公墓碣銘[并序]」: 郡之伽倻津, 載祀典, 舊有神廟, 廢久, 公爲之重建, 監司褒啓, 有旨特賜表裏一襲. 정호인(鄭好仁)의 묘갈명으로 양산군수 시절 가야진 사당을 중수한 사실이 보인다.

31)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合流至尙州爲洛東江, 善山爲餘次尼津, 仁同爲漆津, 星州爲東安津, 加利縣爲茂溪津. 至草溪, 合陝川南江之流爲甘勿倉津, 至靈山, 又合晉州南江之流, 爲岐音江, 漆原爲汚叱浦, 昌原爲主勿淵津, 至金海過密陽 凝川爲磊津[一曰海陽江]. 梁山爲伽倻津, 爲黃山江, 南入于海.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경상도의 물길을 기록한 기사이다. 앞선 내용에 경상도에 크게 세 갈래의 대천(大川)을 안내하여 낙동강, 진강, 황둔강이 있다고 하였다. 진강은 지금의 남강을 지칭하고 황둔강은 현재의 황강을 가리킨다. 이상은 첫째에 해당하는 낙동강의 근원을 설명한 뒤 물길의 흐름을 기술한 부분이다. 상주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드는 과정이 명확하다.

이상에는 낙동강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고을을 경유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대표적인 나루가 제시되어 있다. 상주에서 시작해 선산 여차니진, 인동 칠진, 성주 동안진, 가리현 무계진, 초계 감물창진, 영산 기음강, 칠원 우질포, 창원 주물연진, 밀양 응천과 뇌진, 양산 가야진과 황산강 등을 언급했다. 낙동강의 입장에서 보면 가야진은 하류에 자리한 하나의 물굽이에 불과하고 그리 특징적인 면모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야진의 위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격상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낙동강의 기사를 보면 가야진의 이름이 함께 나타난다.

<산천> 낙동강(洛東江): 주(州: 상주) 동쪽 36리에 있다. 문경(聞慶)의 용연(龍淵) 및 군위(軍威)의 병천(竝川) 등 여러 물이 주의 동북쪽에 이르러 용궁(龍宮) 하풍진(河豐津)에 합하니 남쪽으로 흘러 낙동강이 되고 선산부(善山府) 경계로 들어간다. 여기부터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비록 땅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나 총칭하여 낙동강이라 하고 다시 가야진이라 일컫는다.³²⁾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상주목」에 수록된 낙동강 관련 설명의 전문이다. 영남 지역의 여러 고을이 낙동강을 끼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낙동강을 표제어로 삼아 설명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낙동강의 이칭으로 가야진을 제시한 대목이다. 기존의 여러 지점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음에도 낙동강의 이름을 대변하게 된 현상이 나타난다. 상주에서 김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길을 총칭한 결과로, 이는 세종 대 용의 출현과 관련한 결과인지 모른다.

이러한 가야진의 위상은 19세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18세기 『여지도서』의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8 慶尙道, 「尙州牧」: 〈山川〉 洛東江: 在州東三十六里, 聞慶龍淵及軍威并川諸水至州之東北, 合于龍宮河豐津, 南流爲洛東江, 入善山府界. 自此至入海, 雖隨地異名, 而總稱洛東江, 又稱伽倻津.

낙동강 설명을 보면, 물길의 흐름을 기술한 내용 등에 수정이 있을지언정 낙동강을 가야진이라 일컬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³³⁾ 19세기에 이르러서도 낙동강의 이칭에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 가야진의 기능이 계속되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애초에 조선 전기 중사의 공간이라는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외의 면모도 결부되면서 낙동강의 물길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5. 가야진의 제례를 주관한 기록

가야진이 낙동강의 이칭으로 일컬어진 것은 중사의 공간이란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많은 관료가 제관(祭官)으로 임명되었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을 기록을 남겼다. 대부분이 기우제문(祈雨祭文)이란 제목으로 전하여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 의도가 명확하지만 일부는 비와 무관하게 절기를 맞아 용신에게 제를 지낸 경우도 있다. 이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가야진에서 행해진 국가적 활동 양상을 짐작하게 한다. 가야진을 중심으로 제례의 기능에 주목한 시문을 살펴본다.

먼저 직접 기우제를 지내고 효험을 본 경우이다. 신지제(申之悌, 1562~1624)가 가야진에 제를 지내고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候雨看天日幾回	비 기다리며 하늘 본 지 며칠 지났던가
響簷知有雨聲來	울리는 처마에 빗소리 내리는 줄 알겠네.
霏微細霧輕泥濕	가랑비 열은 안개에 진흙 약간 젖었고
颯沓狂飈大地雷	휘휘 부는 거센 바람에 대지 우레 친다.
隴畝已霑禾黍色	밭두둑의 벼와 기장 빛깔 이미 적시고
郊墟淨洗路歧埃	교외 언덕 갈림길 먼지 깨끗이 씻는구나.
明王修省蒼靈感	명철한 임금 수성하여 창령이 감응하니
吹送同雲遍八垓	구름과 함께 팔해에 두루 불어 보내리라. ³⁴⁾

33) 『輿地圖書』 慶尙道, 「尙州牧」.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하면, 낙동강을 표제어로 삼은 내용에 물길을 서술에 대한 변화가 보이지만 낙동강이 가야진으로 일컬어진다는 설명에는 변화가 없다.

34) 申之悌, 『梧峯集』 권2, 「喜雨有述仍祝[時天旱祭伽倻津]」.

신지제는 1613년(광해군 5)부터 1618년(광해군 10)까지 창원부사(昌原府使)로 부임한 적이 있다. 이때 지은 시를 회산잡영(檜山雜詠)이란 편명 하에 묶었고 창원 인근에 있던 가야진을 방문한 뒤 지은 작품이다. 시의 제목에 「비를 기뻐하며 짓고 이에 빌다」라고 하고, 그 세주에 ‘이때 날이 가물어 가야진에 제를 지내다’라고 적었다.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랑비가 내리자 이에 가야진에 이르러 이를 기념하고 제를 지내 해갈을 기원한 모습이다. 대략의 내용은 비를 축원하고 비가 더욱 많이 내려 대지를 적시기를 기원했다.³⁵⁾

실제 가야진에서 지은 여러 제문이 전하고, 이와 관련한 믿음의 정황이 곳곳에 드러난다. 권오복(權五福)은 충청도 웅진과 경상도 가야진 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³⁶⁾ 평생 다수의 기우제문을 지은 인물로 칠독 가운데 남쪽의 두 곳을 적시면 면모가 보인다. 유호인(俞好仁)은 가야진 세 나루에서 기우제문을 올렸다.³⁷⁾ 가야진 외에 가야진 연소와 가야진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비를 바란 제문은 한둘에 그치지 않으니 이는 궁극적으로 가야진 기우제에 효험이 있다는 믿음의 방증이라 할 만하다.

한편, 임금의 관심하에 제례를 설행한 경우도 보인다. 정범조(丁範祖, 1723~1801)의 시는 다음과 같다.

玄潭一面咲簾櫳,	검은 못 한 수면 주렴 창에 비치니
半夜心香水府通.	한밤중 마음의 향 물가 널리 퍼지네.
牲幣三時崇祀典,	희생 제물로 세 계절 제사 숭상하니
雲雷萬古擅神功.	구름 우레 만고에 신령의 공 떨친다.
潛光祗在冥濛內,	물속에서 빛 감춘 채 그저 지내건만
吹息如聞沕穆中.	심원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구나.
誠德我王同聖祖,	우리 임금의 성덕 성군과 같으시니
始終靈報佇年豐.	신령한 보답에 항상 풍년 기다리리. ³⁸⁾

35) 신지제는 미련에서 임금의 선정으로 창령이 감응해 온 세상에 비가 내릴 것을 예찬했다. 창령은 봄을 주관하는 귀신인 청제(靑帝)를 가리키고 팔해는 여덟 방위의 끝으로 온 세상을 의미한다.

36) 권오복, 『睡軒集』 권3, 「忠淸道熊津慶尙道伽倻津等處祈雨祭文[弘治甲寅四月副校理時製進]」.

37) 유호인, 『濡谿集』 권7, 「伽倻津三度祈雨祭文」.

38) 丁範祖, 『海左集』 권3, 「奉御降香祝, 祭伽倻津龍神」.

정범조가 임금이 내린 향축을 받들고 가야진 용신에 제사하며 지은 시이다. 대략 1769년(영조 45) 10월, 황산도찰방(黃山道察訪)에 제수되고 이듬해 윤5월에 체직된 적이 있어 이 무렵 가야진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황산도(黃山道)는 양산의 황산역(黃山驛)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로(驛路)를 가리킨다. 가야진과 관련하여 신룡이 사는 곳이란 믿음이 보이고 임금의 정성이 지극하여 풍년이 계속되리라 자신감을 표출했다.

대략 19세기 후반까지 가야진의 제례는 꾸준히 설행되었다. 어윤중(魚允中)은 1874년(고종 11) 양산군수에 임명되어 대략 2년 간 이곳에 머무른 적이 있다. 이때의 활동을 『종정연표(從政年表)』에 세세하게 기록하였으니 봄가을마다 가야진에서 춘향(春享)과 추향(秋享)을 올리고 가뭄이 들자 기우제를 행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³⁹⁾ 어윤중에 이어 양산군수를 지낸 이만도(李晩燾) 역시 『향산일기(響山日記)』를 통해 가야진에서 올린 제례의 면모를 담아내고 따로 시를 지어 이를 기념했다.⁴⁰⁾ 사실상 근대 시기 이전까지 제례가 계속되었음을 추정할 만하다.

6. 가야진의 승경과 민간의 유래

가야진은 제례의 공간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경관적 가치를 보유했다. 이에 제례에 의거한 시문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의 경관에 주목한 사례도 확인된다. 사대부의 시문이 일종의 명승과 함께 가야진과 어우러진 모습이다. 한편, 가야진의 이름과 관련한 유래도 전한다. 민간의 설화에 기원한 것으로 오늘날 가야와 연관 지어 가야진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당대 세속의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이기에 간과할 수 없다.

김해의 감로사(甘露寺)는 가야진과 마주한 가장 대표적인 승경이다. 안유(安裕, 1243~1306)의 시가 유명하다.

39) 魚允中, 『從政年表』 권1 高宗 12年(1875), 「二月」; 「八月」; 『從政年表』 권1 高宗 13年(1876), 「二月」; 「閏五月」; 「六月」; 「八月」 등 참조.

40) 李晩燾, 『響山日記』 丙子(高宗13年(1876)) 十二月大丁亥朔, 「三十日」; 『響山日記』 丁丑(高宗 14年(1877)) 正月大丁巳朔, 「四日」; 『響山日記』 戊寅(高宗15年(1878)) 正月大辛亥朔, 「初二日」; 『響山日記』 戊寅(高宗15年(1878)) 二月大辛巳朔, 「三日」; 『響山集』 권1, 「自南倉乘舟上龍堂致齋」; 『響山集別集』 권1, 「祭伽倻津龍堂」

一葉飛來鏡面平, 일엽편주로 평평한 거울 위를 날아 오니
 輝空金碧梵王城. 금벽 빛깔 허공에 빛나는 범왕성이 있네.
 嶺頭蒼翠非嵐影, 고개 머리 푸른빛은 이내 그림자 아니고
 石上潺湲似雨聲. 돌 위로 졸졸 흐르는 물 빗소리 같구나.
 日暖庭花藏淺綠, 따스한 햇살에 뜰에 핀 꽃 연푸름 감추고
 夜涼山月送微明. 서늘한 밤 산에 뜬 달 은은한 빛 보낸다.
 憂民未得湔塗炭, 백성 걱정해도 도탄에서 건져내지 못해
 欲向蒲團寄半生. 부들자리 기댄 채 반평생 부치려 하노라.⁴¹⁾

고려시대 안유가 감로사에서 지은 시이다. 여러 지리지 등에 전하니 어떠한 연유로 방문한 것인지 자세하지 않다. 수련은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감로사에 이른 과정을 읊었다. 함련과 경련은 감로사 일대 산수와 경물의 풍광을 묘사한 대목이다. 안유는 미련에서 자신의 관료적 처지를 돌아보았다. 미약한 능력을 탄식하며 세속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감로사의 그윽한 정취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과연 감로사는 가야진의 탁 트인 풍경과 대비된 안온한 멋을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조임도(趙任道)는 가야진 서쪽 언덕에 있지만 산이 돌고 길이 굽어지며 골짜기가 깊어 바깥에서 절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⁴²⁾ 가야진과 마주하고 있지만 그 연관성이 크게 부각되기 보다 별도의 매력을 안겨다 준 모습이다. 실제 감로사는 김해를 상징하는 사찰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했고 이곳을 방문하거나 읊은 시문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⁴³⁾

오늘날 가야진을 두고 가야와의 관련성을 추정하지만 과거에는 가야의 역사를 떠올린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민간에서는 다른 유래가 회자한 것 같다. 다음은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시이다.

伽倻津水碧沈沈, 가야진 강물 푸르러 어두침침하니

41) 安裕,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慶尙道, 「金海都護府」〈佛宇〉甘露寺.

42) 趙任道, 『澗松別集』 권1, 「遊觀錄」.

43) 김해 감로사는 복을 비는 명찰로 지정되었고 노비가 많은 사찰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太宗實錄』太宗 7년(1407) 12월 2일; 『成宗實錄』成宗 5년(1474) 7월 13일 참조) 박세채(朴世采)는 안유의 시에 차운해 감로사를 읊었고, 신후재(申厚載)는 옛 유람을 추억하며 김해 감로사와 가야진을 회고했다.

甞俗誰知伍伯心. 백성 풍속에 누가 오백의 마음 알까.
見說老龍猶睡臥, 늙은 용 여전히 잠들었다는 말 듣고는
每季簫鼓賽江潯. 매년 소고와 통소로 강가에 제사 지내네.⁴⁴⁾

이학규는 신유옥사(辛酉獄事)에 연루되어 오랜 세월 김해에 유배된 인물이다. 이때 학문에 전념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고 1819년(순조 19) 김해의 풍속을 소재로 삼아 「금관기속시(金官紀俗詩)」를 남겼다. 이상은 가야진을 읊은 시로 제일 마지막 수에 해당한다.

이학규는 위의 시를 적은 뒤 이와 관련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 내용에, “세속에 전하기를, 옛날 어떤 오백(伍伯)의 이름이 가야진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질고 선해 매번 죄수들이 곤장을 맞을 때 먼저 곤장 안에 개돼지 피를 감추어두어 곤장을 치면 피가 흘러넘쳤다. 장관(長官)이 이를 보고 가엾게 여겨 죄인을 모두 가볍게 처벌했다. 오백은 죽어서 신통이 되었고 용당수에 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⁴⁵⁾ 오백은 죄인을 처형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가야진은 오백의 이름이라 하였으니 결국 가씨 성을 가진 누군가의 이름에서 지명이 생성되었다는 말이다. 오늘날 가야의 역사를 떠올리는 현실과 달리 당시 민간에서 이와 결부 짓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하겠다.

7. 가야진을 유람한 사람들

가야진은 제례의 공간과 별개로 낙동강의 주요 나루의 하나였다. 특히 낙동강 일대는 조선시대 사대부가 선유(船遊)의 풍류를 누린 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가야진은 선유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유람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관의 임무와 무관한 현실에서 가야진을 읊은 시문을 지었으니, 가야진 스스로 일종의 명승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가야진을 유람한 사례를 통해 그 경관과 관련한 인식을 살펴본다.

우선, 조선 전기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44) 李學遠, 『洛下生集』 책13, 「金官紀俗詩」 78수.

45) 李學遠, 『洛下生集』 책13, 「金官紀俗詩」: 俗傳昔有伍伯, 名伽倻津. 生而仁善, 每囚徒當棍, 先於棍內藏豬狗血, 棍下血滲, 長官見而惻之, 斷囚悉輕. 伍伯死爲神龍, 在龍塘水.

野外神龍樹竹居,	들 밖의 신룡이 수죽 사이에 기거하니
數間茅屋是齋廬.	몇 칸의 초가집이 바로 그 재려로구나.
秩齊四瀆靈無比,	등급은 사독 같아 신령함 비할 데 없고
功在三龍報不虛.	공은 삼룡에 있어 보답이 헛되지 않네.
滿洞腥雲來冪冪,	굴짜기 가득 비린 구름 자욱히 밀려오고
渾江怪雨響疎疎.	강 가득 괴이한 비 드문드문 울리도다.
我行正值黃梅節,	나의 행차가 정히 황매 절기 만났기에
未見琴高跨鯉魚.	금고가 잉어 타는 것 볼 수가 없구나. ⁴⁶⁾

1465년(세조 11) 김종직은 영남병마평사(嶺南兵馬評事)가 되어 지역의 고을을 순찰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산의 가야진에 들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양산의 용당이라 하였다. 제목에 세주를 달아 세종 대에 황룡이 나타난 곳임을 설명했고 이로 인해 제를 지낼 때 향을 내린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다만 김종직이 제사를 위해 이곳에 이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김종직은 수련에서 가야진 용당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를 신룡의 거처로 그려냈고 몇 칸의 초가가 자리한 사실을 그려냈다. 함련은 양산 용당의 신령함을 읊은 대목이다. 사독은 중국의 4대강을 가리키는 말로 이를 가야진에 전주었고 삼룡은 앞서 세종 대 용을 시험한 세 곳의 하나임을 명시한 듯하다. 김종직은 이에 경련에서 정성에 감응한 기상의 변화를 읊고 마지막 미련에서 황매우(黃梅雨)를 맞아 용을 보지 못한 사실을 말했다. 8구는 금고기리(琴高騎鯉)의 고사로 주나라 때 금고라는 자가 신선이 되어 용의 자식인 잉어를 타고 올랐다는 전설이 전한다. 가야진이 칠독의 하나였기에 영험한 모습에 매료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낙동강의 선유를 즐기는 과정에서 가야진을 읊은 경우도 있다. 다음은 허적(許積, 1563~1640)이 지은 시이다.

淒淒朔吹緊,	쓸쓸한 삭풍 거세게 불어오고
嫋嫋白雲輕.	살랑한 흰 구름 가벼이 떠가네.
靜夜天逾遠,	고요한 밤 하늘 더욱 원대하고
高秋月正明.	높은 가을 달 밝게 떠 있도다.

46) 金宗直, 『佔畢齋集』 권2, 「梁山龍堂[世宗朝, 黃龍見于此, 祭必降香]」.

林柯哀夕響,	나뭇가지 슬프게 저녁에 울고
蟋蟀苦宵征.	귀뚜라미 괴로이 밤길 거니네.
倚棹沙汀畔,	모래 물가에서 배에 기댄 채로
江湖萬里情.	강물에서 만 리의 정을 품노라. ⁴⁷⁾

허적은 낙동강에 배를 띄우고 양산 일대를 유람한 적이 있다. 쌍벽루(雙碧樓)와 통도사(通度寺) 등을 유람하고 다시 한밤중에 가야진에 배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싸늘한 가을밤 날씨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고요한 자연에 울리는 소리를 만끽하는 모습이다. 허적은 마지막에 만 리의 정을 품는다고 하였다. 가야진의 드넓은 물길 한복판에 이르자 원대한 심상을 느낀 것이 분명하다.

실제 가야진 유람의 사례는 한둘에 그치지 않는다. 정사룡(鄭士龍)은 1539년(중종 34) 휴가를 얻어 남쪽으로 내려와 양산 일대를 유람했다. 이때 가야진 인근 언덕에 올라 아침 해를 보며 최고의 유람이라 만족감을 표출했다.⁴⁸⁾ 홍성민(洪聖民)은 가야진 용당에서 벗과 이별했다. 나루의 기능에 기대어 작별의 공간으로 이곳을 택한 정황이다.⁴⁹⁾ 조임도는 용당을 마주한 강 건너 언덕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술을 마시며 일대 풍광을 감상했다.⁵⁰⁾ 국가적으로 영험한 공간이었음에도 이에 국한되지 않았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8. 결론

조선시대 가야진은 낙동강을 대표하는 나루이자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다. 고려시대 이래 중사의 공간으로 지목되고 조선시대 칠독(七瀆)의 하나로 설정되며 그 위상을 드날렸다. 세종 때에는 용이 출현해 위상을 더하였고 낙동강을 일컫는 이칭으로 회자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제례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니, 인근의 가야진연소와 가야진명소가 퇴락한 것과 달리 그 기능을 지속했다고 할 만하다.

47) 許禱, 『水色集』 권2 [詩], 「夜泛伽倻津, 用前韻」.

48) 鄭士龍, 『湖陰雜稿』 권3, 「上龍堂[梁山地]」.

49) 洪聖民, 『拙翁集』 권4, 「梁山龍堂[舊知崔沂迫來以別, 仍次板上韻]」.

50) 趙任道, 『澗松別集』 권1, 「遊觀錄」: 鵲院之下十里許, 斷麓斗起, 黝潭鏡開, 越江北望, 空舍巋然者, 卽所謂上龍堂也, 梁山郡人祭神禱雨之所云. 院僕以行中酒肴略設小酌, 曹子勉又以其所佩筇壺交酬迭醉, 余亦隨量而飲.

기존에 가야진과 황산진을 동일시하거나 가야진의 지명이 옮겨갔다는 분석이 있으나 이와 시각을 달리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가야진은 제례의 기능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이 왕래하며 다양한 특징을 지닌 문화공간으로 기록되었다. 제관들은 이곳에 이르러 많은 기우제문을 남겼고 이는 가야진이 지닌 칠독의 모습을 기억하게 한다. 낙동강에서 선유를 누린 사대부들은 가야진에 머물면서 감로사를 유람하고 일대의 풍광을 만끽했다. 민간에서는 가야진의 유래와 관련한 속설이 회자하였으니 지역에서도 주목했던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신령함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특징으로 다양한 면모를 구가한 가야진의 문화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가야진은 가야진용신제의 설행을 통해 중요한 무형유산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야진의 역사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글은 가야진이 단순한 나루터가 아니라 국가적 기능을 이행한 제례공간으로 낙동강의 상징적 장소임을 밝혔다. 아울러 일대의 승경으로 사대부의 유람이 행해지고 사건 및 설화 등으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이 어우러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글이 향후 가야진의 문화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고준휘, 「양산 가야진사유적 출토 陶磁祭器의 현황과 성격」, 동악미술사학 17, 동악미술사학회, 2015.

남재우, 「新羅의 새로운 경계, 加耶지역에 대한 신라 지배: 아라가야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15, 경남사학회, 2020.

이은주·최윤희·김미선, 「밀양 가야진 용신제 참여자 복식 고증」, 한국복식 5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4.

이주연·김명원, 「가야진용신제의 풍물놀이 연행방식 변화 연구」, 한국예술문화연구 1, 한국예술문화학회, 2021.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전덕재, 「조선시대 영남지역 포구와 나루의 변천」, 도서문화 2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6.

Abstract

Cultural History of Gayajin (伽倻津) in Yangsa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Gayajin (伽倻津) in Yangsan during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documentary sources. Gayajin, located in present-day Wondong-myeon, Yangsan, Gyeongsangnam-do, functioned as a ferry crossing that continued to appear in records from the Goryeo period onward and gained particular importance as a site of state rituals in the Joseon period. This research first reviews the geographical location and features of Gayajin, and then traces its historical transformations through sources such as Goryeosa, Sejong sillok, and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fact that Gayajin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Seven Sacred Streams (Childuk, 七瀆) and served as the site of middle-level state rituals, while also being established as a symbolic space of the Nakdong River. In addition, by analyzing ritual texts, literary works, and prayers for rain, the study confirms that Gayajin played an important role not only at the state level but also in the religious and cultural life of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the analysis of surrounding scenic sites such as Gamnosa Temple, local legends, and travel records of literati reveals that Gayajin was perceived as a cultural and symbolic space that transcended its function as a ferry crossing. This study thus provides a foundation for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history of the Nakdong River basi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for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culture and geographical symbolism.